

“새로운 시작 응원해 주세요”

JYP 떠난 선미 이적 후 첫 신곡 “새 소속사 자유 분방한 분위기”

원더걸스 해체와 함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첫 신곡을 발표한 선미(25·사진)는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곡은 도전이다. 여기서 안주하고 싶지 않고 조금 더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 궁극적인 목표는 ‘믿고 듣는 선미’가 되는 것이다. 굳이 퍼포먼스가 아니어도 음악으로 감동을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원더걸스 출신 선미가 22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3년 만의 솔로 신곡 ‘가시나’를 발표하며 내놓은 출사표는 당찼다.

이번 곡은 원더걸스 해체 이후 처음이자, 올해 3월 JYP에서 메이커스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한 뒤 처음 발표한 노래여서 대중의 관심이 쏠렸다.

선미는 JYP와 메이커스의 차이점을 “JYP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고 메이커스는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적과 함께 프로듀서 진용도 바뀌었다. 2013년 첫 솔로곡 ‘24시간이 모자라’를 박진영, 2014년 ‘보름달’을 용감한형제와 작업한 그는 이번에는 YG엔터테인먼트 신하 레이블이자 테디가 이끄는 더블랙레이블과 손잡았다.

테디와 투포 등의 프로듀서가 작곡하고 선미가 작사한 ‘가시나’는 동양적인 분위기의 신스 사운드에 테마인 노래로 선미의 보컬 역할과 안무가 돋보인다.

선미는 “박진영 프로듀서의 ‘24시간이 모자라’가 제 가능성과 역량을 끌어내 준 곡이라면 ‘보름달’은 그 역량에 동환적이고 고혹적인 분위기를 더해줬다. ‘가시나’는 제가 다채로운 목소리와 이미지로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준 곡으로 파워풀한 보컬에 춤도 취야 해 연습하며 4kg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더블랙레이블과의 작업에 대해서는 “내가 만든 습작을 들려줬더니 마음에 들어 하며 공동 작업을 해보자고 해 얼떨떨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듀서 중 한 명이 내 음악에 흥미를 보여 놀라웠다. 더블랙레이블 소속 작곡가들과 비트를 ‘똥똥’거리다가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녹음실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영어로 가이드를 녹음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어감이 독특한 ‘가시나’란 제목은 작곡가 투포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가시나’에는 꽃에 ‘가시가 돋는다’는 뜻과 입은 날 두고 떠나 ‘가시나’란 뜻, 순우리말로 ‘아름다운 꽃의 무리’라는 뜻까지 세 가지 층위적인 의미가 담겼다.

새 출발을 하는 선미는 2007년 원더걸스로 데뷔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그 사이 원더걸스에서 잠시 떠나 공백기도 있었지만 팀에



다시 합류했고, 솔로 가수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줬다.

그는 “(우리 나이로) 16살에 데뷔해 아직 26살”이라며 “많은 분이 30대로 아는데 아직 4년이 남았다. 대중에게 다시 나이를 어필해야 할 것 같아 이번에는 전작과 다르게 감쪽한 모습이 있다”고 웃었다.

싱글 CD에 120페이지의 포토북을 담아 스페셜 에디션으로 선보인 이유도 “예쁜 모습, 민낯 등 어엿한 숙녀가 된 나의 다양한 모습과 감정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진영과 원더걸스 멤버들로부터 응원을 받았으며 고마움도 나타냈다.

선미는 “유니 언니는 ‘하고 싶은 것을 잘하고 있어 보기 좋다’고 했고, 소희는 음악과 안무를 보더니 ‘너무 멋있다’고 칭찬해줬다. 박진영 프로듀서도 ‘준비 잘 돼가고 있느냐’고 걱정해주며 직접 진행하는 SBS TV ‘퍼피 피플’ 제작진과 출연을 얘기해보겠다고 하셨다. 다른 곳에 있어도 응원해주시고 고맷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무현입니다’·‘김광석’·‘안녕 히어로’ ...

정치·사회 문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뜨다

지난 5~6월 돌풍을 일으킨 ‘노무현입니다’에 이어 정치·사회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장가에 쏟아지고 있다.

2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공영방송의 무너진 공공성을 다룬 ‘공범자들’은 개봉 5일째인 21일까지 총 7만5천768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박스오피스 6위를 차지했다. 개봉 첫날 186개 스크린으로 출발한 이 영화는 관객의 호응에 힘입어 스크린 수를 210개(21일 기준)로 확대했다.

배급사 옛나인필름 측은 “정치계, 시민단체, 학교 등 각종 각층의 단체관람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객들의 요청으로 30개 이상의 극장이 상영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30일에는 가수 김광석의 자살에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김광석’이 개봉하는 데 이어 내달 7일에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를 다룬 다큐 ‘안녕 히어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를 다룬 다큐 ‘저수지 게임’이 나란히 간판을 내건다.

‘안녕 히어로’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영화다. 아무런 결과도 없는 힘든 일을 이어오고 있는 해고노동자 아빠를 도우지 이해할 수 없는 소년 현우가 점차 아빠의 인생을 마음으로 끌어안게 된다는 내용이다.

작품을 연출한 한영희 감독은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정리해고에 대한 다양한 화두가 한국사회에 등장했지만 노동자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안녕 히어로’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노동의 현실, 해고의 현실을 전하고자 했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저수지 게임’은 2012년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을 다룬 다큐 ‘더 플랜’을 지난 4월 선보였던 김어준 판지일보 총수가 제작한 영화로, 이번에도 최진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MB의 비자금 추적해 온 과정을 담았다.

이밖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소재로 한 다큐 ‘무현, 두 도시 이야기’는 작년 개봉 당시 미포함했던 30여 분의 영상을 더해 ‘무현, 두 도시 이야기 : 파이널 컷’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30일부터 극장에서 상영된다.

이처럼 정치·사회 문제를 다룬 다큐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정권 교체와 맞물려 ‘저렴 청산’이 화두로 떠오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관객의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5월 개봉한 ‘노무현입니다’는 총 185만 관객을 동원하며 다큐로서는 이례적인 흥행 실적을 올렸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다큐멘터리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같은 감동 다큐가 인기를 끌었다면, 최근 사회·정치 이슈를 다룬 작품들도 관객을 호응을 받고 있다”며 “과거 기획됐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 개봉하지 못했던 작품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BS광주, ‘4차 산업혁명 ...’

오늘 밤 KBS 1TV 10시 방영

KBS광주방송총국(총국장 박영환)은 KBS광주특별기획 다큐멘터리 ‘4차 산업혁명, 도시의 미래를 꿈꾸다’를 23일 오후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한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짚어보고, 광주·전남이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조명한다.

또 특집 다큐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산업과 에너지밸리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맞은 산업인기에 대해 전문가의 진

담도 담았다.

특히 광주·전남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인더스트리 4.0’의 근원지 독일을 찾아가 인더스트리 4.0을 실현하고 있는 대기업 ‘보쉬’와 중소기업 ‘피서’ 등 사례도 소개한다.

국내 스마트팩토리와 인공지능연구소, 카이스트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시도우미 로봇과 무인자동차 등 중점 보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에서 만들어야할 일자리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도시의 미래를 꿈꾸다’는 인터넷(gwangju.kbs.co.kr)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Y K)을 통해 동시 시청할 수 있다. /전문기자 eji6621@kwangju.co.kr

TV 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그레이트 지리산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달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죽어야 사는 남자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속보이든TV 인사이드 (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맨홀-이상한 나라의 필 (재)	00 MBC 정오뉴스 20 죽어야 사는 남자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인 50 민방위훈련 특집 위기상황 이렇게 대비합시다		30 문화사색 (재)	55 닥터 365
2	50 특쓰는 인터뷰 소다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20 텔레몬스터 (재) 25 프리파라 2 (재)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팔도밤산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1 (재)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55 별별머리 (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톨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스토에이지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40 죽어야 사는 남자 (재)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다시 만난 세계 (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령전문극 남도에 살리라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사람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자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하하랜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KBS광주 특별기획 4차산업혁명, 도시의 미래를 꿈꾸다 55 숨터	00 맨홀-이상한 나라의 필	00 죽어야 사는 남자	00 다시 만난 세계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싱글 와이프 1~2부
12	35 특선 UHD 다큐멘터리 박 아이디어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페루 및기행 - 세베체의 나라)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꼬마버스 타요(1)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월드 08:00 당동명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파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얼마 깨두리(재) 09:30 물랑	09:40 글로벌애버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한여름, 동굴속으로 - 베니이다 베니이다)(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매콤 주꾸미볶음, 숙주초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IDF 2017 (자스트 키트:아빠 꿈) 12:30 EIDF 2017 (호랑이 키트 선생님) 14:30 EIDF 2017 (와인의 땅, 프리오르트)
15:45 EIDF 2017 (자스트 키트:사피아의 여름) 16:05 EIDF 2017 (와이 우먼즈)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파지(재) 16:45 당동명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로보가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1~4 19:00 어벤져스:올트론 레볼루션 19:30 EBS 뉴스 19:55 메디컬 다큐-7요일(재)	20:50 세계테마기행 (유목민의 땅 중앙아시아 - 유목민의 삶과 힐링로드) 21:30 한국기행 (그해, 오지의 여름 - 세상 끝에서 사랑을 만나다) 21:50 EIDF 2017 (데이빗 보워:지기 스타터 마지막 날들) 23:30 EIDF 2017 (나의 시, 나의 도시) 25:05 EIDF 2017 (얼떨렁)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3일(음 7월 4일 壬午)

子	48년생 간절히 바라던 일이 궁극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느니라. 60년생 개괄적인 파악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갖게된다. 72년생 객관적이지 않다면 실용성이 없다. 84년생 길 다르고 속 다르다.는 사실을 알라. 행운의 숫자 : 99, 24	午	42년생 완전성을 도모해야 후회하지 않으리라. 54년생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66년생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78년생 낙관적인 미래이다. 90년생 관계가 매끄러워야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8, 55
丑	49년생 길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61년생 길이 희고고 속까지 같으리라는 생각은 오만이다. 73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한의 격식은 갖추자. 85년생 결과를 보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40, 31	未	43년생 내면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55년생 노고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 67년생 노력과 반비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79년생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찌기 나서는 양태이다. 91년생 근본적인 부분부터 손잡라. 행운의 숫자 : 58, 80
寅	50년생 결코 녹록치않은 않을 것이다. 62년생 경쟁성부터 헤아리자. 74년생 경험에 비추어 냉정하게 판단함이 옳다. 86년생 예리한 안목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미래의 보배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6, 96	申	44년생 먼 거북이가 우연히 뜬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56년생 다들 다들 완성도가 높아지겠다. 68년생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형상이다. 80년생 다수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5, 13
卯	51년생 이제 조금만 더 진행한다면 전체적인 구도상 안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63년생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을 때 새로운 불 수 있다. 75년생 고진감래하는 격이다. 87년생 과도하다면 지장을 조래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19, 31	酉	45년생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57년생 단단해 보였던 것이 쉽게 파손될 수 있다. 69년생 단일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다. 81년생 달콤한 결실을 하나하나 따게 되는 기쁨이 있도다. 행운의 숫자 : 07, 34
辰	52년생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목격하는 비와 거리가 생길 수 있느니라. 64년생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76년생 관점은 운세이니 강구해도 될 것이니라. 88년생 간이한 것보다 구체적이었을 때 더 생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26, 52	戌	46년생 당연시 해왔던 바에 번수가 생긴다. 58년생 대국의 구성을 새롭게 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70년생 대체로 길조이니 의욕하여 왔던 배를 마음껏 펼쳐도 된다. 82년생 대적인 흐름은 양호하나 결말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8, 28
巳	53년생 근처에 있는 사람이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65년생 기동력과 순발력이 시급하다. 77년생 기쁨은 한 순간일 뿐인데 아쉬움은 많이 남으리라. 89년생 기억에 영원히 각인될 수 있는 일이 생길리다. 행운의 숫자 : 27, 40	亥	47년생 상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리라. 59년생 상대의 태도에 대한 의증을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71년생 상대적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83년생 새로운 인연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5, 90

“전환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